

# 캐나다의 대마·대중 통상 현안 및 전망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044-414-1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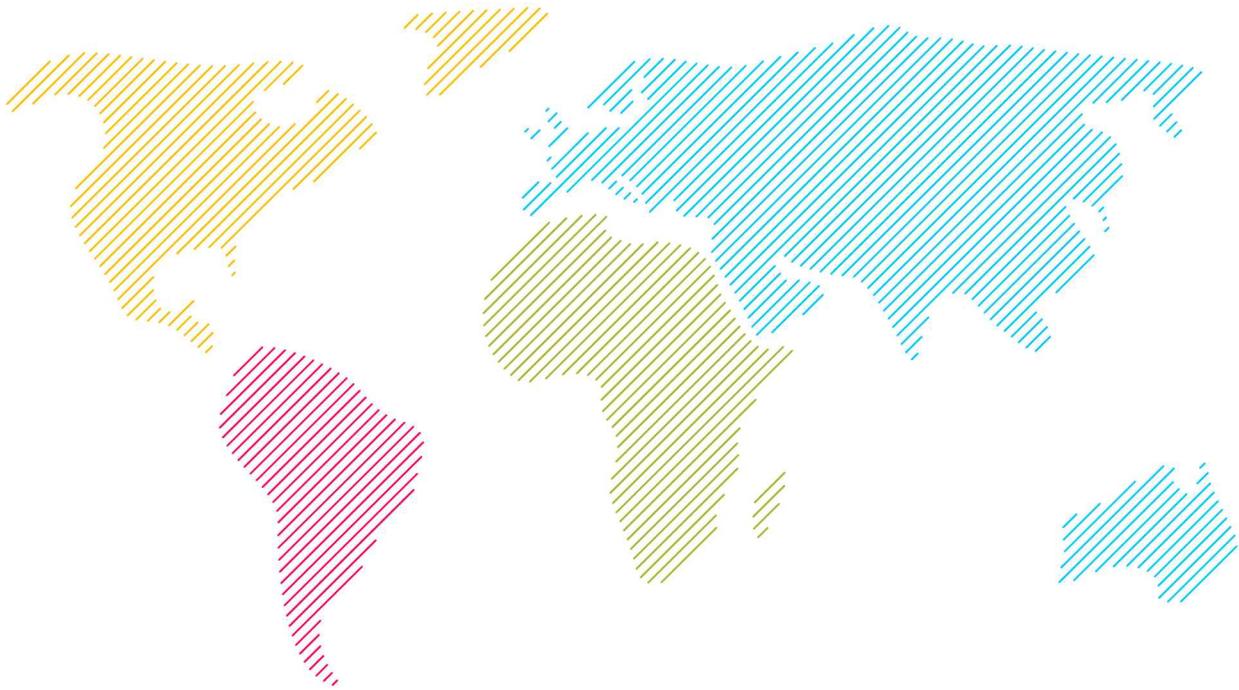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044-414-1511)

임지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전문연구원  
(jwrim@kiep.go.kr, 044-414-1273)

# 캐나다의 대미·대중 통상 현안 및 전망

## 요약

- ▶ 캐나다의 통상정책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연방정부 총선(2019년 10월)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있음.
  -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캐나다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미국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캐나다는 대외적 통상환경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연방정부 총선(2019년 10월 21일),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으로 예상되는 피해 예상 산업부문의 동향 등 대내적인 이슈들도 캐나다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 캐나다는 USMCA 타결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경제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
  - 캐나다의 10대 교역상대국 가운데 중국,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USMCA, CPTPP, 양자간 FTA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캐나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다만 USMCA의 회원국과 비시장국 간 FTA 체결조건 강화 조향으로 인해 향후 중국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캐나다 정부의 주요 대미 통상 현안으로 USMCA 비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철폐,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이 있음.
  - 2018년 11월 30일 서명한 USMCA 비준과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철폐를 연계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임.
  -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는 USMCA 협정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협정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입장
  -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로 캐나다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산 부품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 ▶ 중국은 캐나다산 펄프 반덤핑 관세 부과, 캐나다 곡물기업의 카놀라씨 수출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입장을
  -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가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2018년 12월)됨으로써 캐나다의 대중국 농산물·에너지·목재 수출과 중국의 대캐나다 투자가 보류되고 있음.
- ▶ 미·중 통상분쟁으로 미국 산업부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캐나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미국과 중국은 각각 캐나다의 1위, 2위 교역 상대국으로 중국에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미국에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캐나다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될 경우 중국으로의 판로가 막힌 미국산 농산물의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캐나다산 농산물의 미국시장 내 가격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전망



## 차 례

1. 머리말
2. 캐나다의 대외경제관계: 대미대중을 중심으로
  - 가. 캐나다 경제 및 무역 현황
  - 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3. 캐나다 정부의 통상정책
  - 가. 통상정책 방향
  - 나. 지역통합 및 자유무역
4. 대미 및 대중 주요 통상 이슈
  - 가. 대미 통상 이슈
  - 나. 대중 통상 이슈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 1. 머리말

■ 자유무역주의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캐나다는 대내·외적인 통상 환경 악화에 고심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등이 캐나다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중 통상분쟁,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유로지역 경제전망치 하향 조정,<sup>1)</sup>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등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9년 10월 21일로 예정된 연방정부 총선과 같은 국내 변수들도 캐나다의 대외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됨.
-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의 지지율은 트뤼도 정부의 도덕성 논란으로 보수당에 비해 9% 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음.<sup>2)</sup>

■ 캐나다는 CETA<sup>3)</sup>(28개국), CPTPP<sup>4)</sup>(11개국), USMCA(3개국)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으나 제2의 무역상대국인 중국과는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NA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캐나다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협상을 통해 USMCA에 서명(2018년 11월 30일)하였음.
- USMCA는 의회의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음.
- 트뤼도 정부는 2017년 8월까지 중국과도 3차례 FTA 협상을 하였으나 현재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
- USMCA에서 정한 비시장국과의 FTA 체결조건 강화 조항으로 인해 향후 중국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고에서는 캐나다의 대외경제관계, 통상정책, 주요 통상 이슈를 분석하고, 향후 캐나다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봄.

- 캐나다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캐나다의 무역 및 투자관계 등을 분석함.
- 캐나다 정부의 통상정책에서는 통상정책 방향, FTA 추진 동향,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 시장다각화 노력 등에 대해 살펴봄.
- USMCA 비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철폐, 비시장국과의 FTA 체결 등 캐나다의 대미, 대중 통상 이슈에 대해 분석함.

1) 2019년 3월 7일 유럽중앙은행(ECB)는 유로지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018년 12월)에서 -0.6%p 하향 조정한 1.1%로 전망함.

2) Ipsos(2019. 3. 5, 검색일: 2019. 3. 21).

3) 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4)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2. 캐나다의 대외경제관계: 대미·대중을 중심으로

### 가. 캐나다 경제 및 무역 현황

■ 2018년 캐나다는 2.0%<sup>5)</sup>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다소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 중앙은행은 2019년 캐나다 경제성장률이 1.7%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0년에는 2.1%로 예상<sup>6)</sup>
  - 국제유가(WTI) 하락, 미국 중심으로의 원유 공급 확대, 캐나다 오일샌드 투자 위축 등에 기인하여 캐나다의 2019년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 및 부동산 투자 심리 위축, 금리 상승 등은 상반기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반면 캐나다 경제의 낮은 실업률,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과 투자 호조, 외국인투자 확대, 캐나다 달러 약세 등은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하반기부터 소비가 회복될 경우 경제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10월 21일로 예정된 연방 총선도 캐나다 경제정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트뤼도 정부의 도덕성 논란으로 인해 자유당 지지도가 보수당에 비해 9%p 낮은 상황<sup>7)</sup>

■ 캐나다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의 76.4%(32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중국(4.3%), 영국(3.2%), 일본(2.2%)등의 순임.

-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비중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같은 기간 대중국 수출 비중은 3.6%~4.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캐나다의 대미 수입비중은 51.5%(237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12.6%), 멕시코(6.3%), 독일(3.2%), 일본(3.1%) 등의 순임.

- 2014년 54.5%이던 캐나다의 대미 수입비중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52.2%, 51.5%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캐나다의 여섯 번째 수출상대국으로 캐나다 수출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측면에서는 일곱 번째 수입상대국으로 캐나다 수입의 1.5%를 차지

5) Bank of Canada(2019a, 검색일: 2019. 4. 5).

6) Bank of Canada(2019b, 검색일: 2019. 3. 19).

7) Ipsos(2019. 3. 5, 검색일: 2019. 3. 21).

표 1. 캐나다의 10대 무역상대국(2017년)

(단위: 십억 미달러, %)

국가	수출		국가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국	320.1	76.4	미국	236.6	51.5
중국	18.0	4.3	중국	57.8	12.6
영국	13.6	3.2	멕시코	28.7	6.3
일본	9.1	2.2	독일	14.5	3.2
멕시코	6.0	1.4	일본	14.2	3.1
한국	4.0	0.9	영국	7.1	1.6
독일	3.2	0.8	한국	7.0	1.5
인도	2.8	0.7	이탈리아	6.6	1.5
프랑스	2.6	0.6	프랑스	5.0	1.1
네덜란드	2.4	0.6	베트남	4.1	0.9

주: BOP 기준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October 2018)(검색일: 2019. 3. 6).

■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목(2017년 기준)에는 광물성 연료, 일반차량, 보일러·기계류, 천연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 목재와 그 제품, 전기기기·녹음기·텔레비전, 플라스틱, 항공기·우주선, 알루미늄 등이 있음<sup>8)</sup>.

- 광물성 연료·에너지(20.1%), 천연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4.3%), 목재와 그 제품(3.3%) 등과 같은 천연 자원 혹은 1차 산품의 수출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일반 차량 및 그 부분품·부속품의 수출비중은 14.8%이나,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캐나다의 주요 수입품목(2017년 기준)에는 일반차량, 보일러·기계류, 전기기기·녹음기·텔레비전, 광물성 연료, 플라스틱과 그 제품, 광학기기·측정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의료용품 등이 있음<sup>9)</sup>.

- 일반차량(17.2%), 보일러·기계류(14.7%), 전기기기·녹음기·텔레비전(9.9%)과 같은 공산품의 수입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캐나다의 주요 대미 수출품은 광물성 에너지류(HS27), 차량 및 그 부분품(HS87), 보일러·기계류 및 부분품·부속품(HS84)으로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대미 수입품은 차량 및 관련 부품류(HS87), 기계류 및 관련 부품류(HS84, HS85), 광물성 에너지류(HS27)로 전체 수입의 49.4%에 달함.<sup>10)</sup>

- 2017년 기준 상위 50대 대미 수출품을 살펴보면 석유와 역청류(HS2709)를 가장 많이 수출(532억 달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대미 수출액의 16.7% 비중을 차지함.
- 캐나다는 석유, 가스 광물자원 등 세계적인 에너지 생산국으로 석유의 경우 확인 매장량 세계 3위, 세계 5위 생산국인 동시에 천연가스(HS2711) 역시 세계 3위 생산국임.

8) UNComtrade DB(검색일: 2019. 3. 21).

9) *Ibid.*10) *Ibid.*

- 2017년 기준 캐나다의 상위 50대 대미 수입품을 살펴보면 승용차량 및 관련 부품(HS8703)을 가장 많이 수입(146억 달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대미 수입액의 6.6% 비중을 차지함.

■ 캐나다의 주요 대중 수출품은 식량 작물(HS12), 목재·펄프 및 관련제품(HS47, HS44), 차량 및 관련 부품 (HS87)으로 전체 수출의 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대미 수입품은 전기기계(HS85, HS84), 가구(HS94) 및 완구 제품(HS95)으로 전체 수입의 55.8%에 달함.<sup>11)</sup>

- 2017년 기준 캐나다의 상위 50대 대중 수출품을 살펴보면 유채씨(HS1205)를 가장 많이 수출(20억 달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대중 수출액의 11.2% 비중을 차지함.

○ 대중 교역의 가장 큰 수출품인 캐나다산 카놀라씨 관련 제품은 우수한 품질로 최근 10년 동안 수출량이 약 10배가 증가함.<sup>12)</sup>

- 2017년 기준 캐나다의 상위 50대 대중 수입품을 살펴보면 음성·영상 등 자료의 송·수신 기기(HS8517)를 가장 많이 수입(65억 5,000만 달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대중 수입액의 12.0%를 차지함.

## 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 2017년 캐나다의 해외직접투자(ODI) 규모는 1조 1,211억 캐나다 달러로 미국(45.0%)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9.2%), 룩셈부르크(6.9%), 바베이도스(4.4%) 등의 순임.<sup>13)</sup>

- 캐나다의 대미 해외직접투자비중은 1992년 57.8%에서 25년 동안 12.8% 포인트 낮아져 2017년 45.0%를 기록

- 캐나다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는 1.0%(2017년 기준)에 불과하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캐나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8,240억 캐나다 달러로 미국이 거의 절반인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11.2%), 룩셈부르크(6.1%), 영국(5.8%), 스위스(4.9%) 등의 순임.<sup>14)</sup>

- 1997년 66.4%였던 미국의 대캐나다 투자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49.1%를 기록

-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캐나다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17년 296억 달러(3.6%)를 기록

- 중국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캐나다에 대한 투자를 늘려 2017년에는 164억 달러(2.0%)까지 확대되었음.

■ 캐나다의 대미국 투자(2017년 기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39.3%)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교통 및 유통업(11.0%), 제조업(8.7%), 광업 및 에너지(8.0%), 기업 및 회사경영(7.7%) 등의 순으로 나타남.<sup>15)</sup>

11) *Ibid.*

12) 「突发! 中加关系敏感时刻, 中国海关突然开刀!」(검색일: 2019. 3. 25).

13) Statistics Canada(2019a, 검색일: 2019. 3. 6).

14) *Ibid.*

15) Statistics Canada(2019b)(검색일: 2019. 3. 28).

- 금융 및 보험업, 교통 및 유통업, 부동산 및 부동산업, 전문직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은 2002년 이후 점차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미국의 대캐나다 투자(2017년 기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제조업(22.2%), 광업 및 에너지(17.8%), 기업 및 회사경영(16.7%), 오일 및 가스(16.2%), 금융 및 보험업(16.0%), 소매업(8.4%) 등이 있음.<sup>16)</sup>

-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은 2002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기업 및 회사 경영, 석탄 및 석탄 제조업 부문에서 미국의 대캐나다 투자비중은 2002년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의 대중 해외직접투자 누계(2003~17년)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금융(26.9%)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에너지(16.9%), 산업 상품 및 서비스업(13.0%), 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업(11.6%), 광업 및 화학(11.6%), 기술(7.7%), 기타(6.5%), 농업 및 임업(5.9%)의 순으로 나타남.<sup>17)</sup>

- 금융 부문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대형 쇼핑몰이나 오피스 건물에 대한 투자)가 39%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3. 캐나다 정부의 통상정책

#### 가. 통상정책 방향

■ 캐나다의 대외통상정책은 집권당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음.

- 2006년 1월 집권한 보수당은 10년 동안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고, 양자간 FTA, TPP 등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자국무역 이익 극대화 전략을 추진

○ 집권당이었던 보수당은 캐나다-EU FTA 협상 타결(2014년), 캐나다-한국 FTA 발효를 최대성과로 홍보하고, 연방정부 총선(2015년 10월) 이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을 주장할 정도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었음.

- 2015년 10월 집권 보수당을 누르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자유당은 총선 공약으로 국내산업 육성, 환경보호, NAFTA 위주의 통상정책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보수당과 공통점이 있음.

○ 자유당은 수출 관련 부문 종사자의 임금이 비수출 부문 종사자의 임금에 비해 50%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출 확대의

16) *Ibid.*

17)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2018), p. 38.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로 미국, 멕시코와의 새로운 통상 관계 정립,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자문제 해결 등 NAFTA 위주의 통상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sup>18)</sup>

■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

-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보호무역 관련 정책들을 실시하였으며,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후에도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유럽연합 및 일본과의 무역협상 추진 등을 불공정무역 해소를 위한 도구로 활용
-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교역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반면 유럽연합, 일본에 대해서는 공정한 교역상대국<sup>19)</sup>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큰 이견은 없음.
- 다만 민주당은 NAFTA 재협상으로 새롭게 체결된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의 특허, 노동, 환경보호 관련 조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비준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sup>20)</sup>
-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TPP 탈퇴, WTO 탈퇴 가능성 언급 등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TPP 잔류, WTO를 통한 분쟁 해결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캐나다는 미국의 NAFTA 재협상,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낙농시장 개방 요구 등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음.
- NAFTA 재협상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역내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나. 지역통합 및 자유무역

■ 캐나다는 1994년 NAFTA를 체결한 이후 전 세계적인 FTA 체결 추세에 맞추어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과 관계를 증진하고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NAFTA 체결 이후 25년 동안 총 14건의 FTA가 발효되었는데, NA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로 명칭을 바꿔 2018년 11월 30일 서명을 마쳤으며, 각국의 비준만 남겨두고 있음.
- 캐나다는 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지역(미국, 멕시코)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시장인 EU와 2017년 9월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발효시켰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도 2018년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18) Liberal Party of Canada(2015), pp. 66-67(검색일: 2019. 3. 14).

19)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8년 6월)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정한 교역상대국이라는 응답이 각각 70%, 65%로 이들과의 역협상에 우호적인 입장임[Gallup(2018, 검색일: 2019. 3. 14)].

20) Bloomberg(2018, 검색일: 2019. 3. 14).

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하는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무역협상을 체결함.

-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2015년 1월)한 바 있으며, 이후 CPTPP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등으로 통상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있음.

■ 트뤼도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중남미 국가들과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트뤼도 총리 취임(2015년 11월) 이후 중남미의 안데스공동시장(Mercosur) 및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국가들과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안데스공동시장(Mercosur) 국가들과는 2017년 10월 9일 포괄적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2018년 3월 20일 1차 협상을 마친 상태임.
- 태평양 동맹 국가들과는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준회원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이들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어 2017년 6월부터 오퍼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음.

표 2. 캐나다의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구분	국가	주요 내용
발효	NAFTA(1994)	• 캐나다, 미국, 멕시코
	칠레(CCFTA)	• 1996년 12월 5일 체결, 1997년 7월 5일 발효
	이스라엘(CIFTA)	• 미주지역 이외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1997년)
	코스타리카(CCRFTA)	• 2001년 4월 23일 체결, 2002년 11월 1일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9)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페루	• 2009년 8월 1일 발효
	콜롬비아	• 2011년 8월 15일 발효
	요르단	• 2012년 10월 1일 발효
	파나마	• 2013년 4월 1일 발효
	온두라스	• 2014년 10월 1일 발효
	한국	• 2015년 1월 1일 발효
	우크라이나	• 2017년 8월 1일 발효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 EU 국가와 체결한 FTA로 2017년 9월 21일 발효
CPTPP	• 2018년 12월 30일 발효(11개국 중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베트남이 비준을 마쳐 먼저 발효됨.)	
서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2015년 10월 5일 협상 완료, 2016년 2월 4일 서명,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 CPTPP로 대체됨.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 미국-캐나다 나프타 재협상 타결(2018년 9월 30일), 2018년 11월 30일 USMCA 서명
협상중	안데스공동시장(Mercosur)	• 2018년 3월 20일 첫 번째 협상 개시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카리브공동체(CARICOM)	• 협상 개시 선언(2007년 7월 1일) 이후 7차례 협상 개최
	중국	• 2016년 9월 22일 협상 개시 선언, 2017년 8월 4일까지 3차례 협상
	중미 4개국(CA4)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12차례 협상하였으나, 캐나다는 온두라스와 양자간 협상에 집중
	도미니카공화국	•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12월까지 협상하였으나, 이후 중단

구분	국가	주요 내용
	인도	• 2017년 8월 21일 10차 협상 개최
	일본	• 2014년 11월 17일까지 7차례 협상
	모로코	• 2012년 6월까지 3차례 협상
	싱가포르	• 2001년 10월 협상 개시 • 캐나다는 양자협상보다는 ASEAN과의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터키	• 2013년 8월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무역위원회 설립 합의
	태평양 동맹 (Pacific Alliance)	•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는 2017년 6월 29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옵저버 국가로 초대
협상준비	ASEAN	• 2017년 9월 8일 협상 개시 선언
	필리핀	• 2015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 캐나다는 필리핀과의 양자협상보다는 ASEAN과의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대만	• 캐나다는 양자협상보다는 대만을 포함한 ASEAN과의 협상에 우선순위를 둠.

자료: Government of Canada(검색일: 2019. 3. 20).

## 4. 대미 및 대중 주요 통상 이슈

### 가. 대미 통상 이슈

■ [USMCA 타결] NAFTA 재협상(USMCA)으로 기존의 NAFTA 규정이 일부 바뀌거나, 새로운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캐나다의 대미 통상 이슈 및 정책도 이에 맞추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USMCA 합의에 따라 자동차 원산지 규정,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노동 등의 분야에서 무역규범이 강화되었으며, 환율, 비시장국과의 FTA, 일몰조항 등은 새롭게 추가되었음.
-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무관세 및 차별적 조치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규정 강화, 환율 조작금지 규정 추가, 비시장국과 FTA 체결 시 통보 규정 등의 분야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 큰 이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
-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낙농시장 개방, 분쟁해결절차 등의 분야는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여전히 미국과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로 캐나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국산 부품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낙농부문에 캐나다가 시장을 3.59% 더 개방하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2018년 9월 30일)한 직후 트뤼도 총리는 낙농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낙농업계의 피해보상 수준을 넘어 캐나다 낙농부문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정부지원을 약속<sup>21)</sup>
  - 분쟁해결절차 조항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주장대로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연목재(softwood lumber)<sup>22)</sup>와

21) "USMCA: Trudeau meets with Quebec dairy farmers, promises compensation"(검색일: 2019. 3. 14).

22) 목재 수입의 95%를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캐나다 정부가 목재 수출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한다고 판정을 내리고 평균 20.8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음["Canada starts appeal of US softwood lumber tariff decision"(검색일: 2019. 3. 13)].

같이 미국과 통상분쟁을 겪고 있는 부문은 기존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나, USMCA 타결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어서 여러 협상 채널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USMCA 비준] 캐나다 정부는 2018년 11월 30일 서명된 USMCA 비준과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철폐를 연계하여 처리한다는 입장임.

-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캐나다산 철강(25%) 및 알루미늄(1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데 대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USMCA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sup>23)</sup>
-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이후 미국의회에 USMCA 비준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USMCA 비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USMCA를 비준하지 않을 경우 NAFTA가 체결된 1994년의 무역질서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USMCA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 환경 보호, 의약품 접근성 강화,<sup>24)</sup> 일자리 아웃소싱 중단 등의 분야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sup>25)</sup> USMCA에 '재협상을 의미하는 문구'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sup>26)</sup>하고 있음.
- USMCA가 미국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 재협상이 이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USMCA를 '획기적인 성과이며 현대적인 협정 (truly ground-breaking achievement, modern-day agreement)'<sup>27)</sup>으로 평가하고 있어 USMCA가 완전히 폐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 원산지 규정]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가 캐나다의 자동차 부문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은 역내부가가치 비율(RCV: Regional Value Content)<sup>28)</sup> 인상(62.5%→75%), 노동가치 비율(LVC: Labor Value Content) 개념 도입<sup>29)</sup>,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 70% 이상 사용 등임.
-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가운데 RCV와 LVC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모두 미달한 경우는 각각 60%와 12%이며, RCV와 LVC 하나만 충족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17%, 11%에 불과함.<sup>30)</sup>
-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조항으로 인해 북미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북미지역 생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음을 우려

23) "Canada threatens not to ratify USMCA until US ends steel, aluminum tariffs"(검색일: 2019. 3. 18).

24) 생물 의약품(biologic medicines)에 대한 데이터 보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싼 가격의 복제 의약품 구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Washington Trade Daily(2019b), p. 1)).

25) Washington Trade Daily(2019a), p. 2.

26) Washington Trade Daily(2019b), p. 1.

27) YouTube(2018, 검색일: 2019. 3. 12).

28)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USMCA 발효 4년차부터 75%까지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도 70% 이상을 북미지역에서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9) 발효 4년차부터 자동차 생산의 40% 이상을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이 생산하여야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함.

30) Boston Consulting Group(2018, 검색일: 2019. 3. 20).

- 한편 노동가치비율 개념 도입에 따라 최저임금 요건이 추가되면서 캐나다와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가격경쟁력은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캐나다는 미국시장에 대한 우선접근(preferential access)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 발동에도 비교적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음.<sup>31)</sup>
  - 미국이 부속서한(Side letter)<sup>32)</sup>을 통해 232조 규제를 발동하여 수입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 없이 260만 대까지 미국 수출을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는 연간 180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미국이 232조를 적용할 경우에도 수출 허용치(260만 대)를 크게 밑돌고 있어 일본, 독일, 한국 등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임.<sup>33)</sup>
- [북미지역 생산네트워크] 캐나다의 자동차 업체들은 USMCA가 발효될 경우 북미 자동차 생산네트워크의 연속성(continuation)과 안전성(stability)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제로 생산설비를 멕시코에서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임.<sup>34)</sup>
- 캐나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USMCA로 통합된 시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속련 노동자의 임금 상승, 첨단 자동화 공장설비, 에너지비용 상승 등 운영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의 운영에는 미국 남부나 멕시코에서는 필요 없는 난방비용이 발생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연방정부 탄소 부담금(federal government carbon levy) 제도도 에너지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임.
  - 캐나다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톤당 20달러씩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며, 매년 10달러씩 올려 2022년에는 톤당 50달러까지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sup>35)</sup>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폐지] 미국의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폐지 추진은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USMCA 비준의 선결조건일 뿐만 아니라 USMCA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실질적 해결책으로 판단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8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2018년 6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였음.
  - USMCA 타결 이후 캐나다 제조업계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USMCA 협정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협정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관세 철폐는 USMCA를 보다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sup>36)</sup>
  - 트럼프 행정부도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추진<sup>37)</sup>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여

31) "USMCA No Panacea for Canadian Automakers"(검색일: 2019. 3. 18).

32) Office of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8, (검색일: 2019. 3. 18).

33) "USMCA No Panacea for Canadian Automakers"(검색일: 2019. 3. 18).

34) *Ibid.*

35) "Here's how each province stands to be affected by the federal carbon tax"(검색일: 2019. 3. 12).

36) "USMCA No Panacea for Canadian Automakers"(검색일: 2019. 3. 18).

37) 미국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019년 3월 12일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밝힘["U.S. working on steel, aluminum tariff relief for Mexico, Canada: trade chief"(검색일: 2019. 3. 14)].

부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

-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찬반토론, 의회 휴회기간(8월 3일부터 9월 8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관세 철폐 조치와 USMCA 이행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판단됨.

## 나. 대중 통상 이슈

■ [‘화웨이 사태’에 따른 경제관계 경색] 화웨이(Huawei)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멩완저우 체포로 캐나다와 중국간 경제 협력 관계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국 뉴욕동부지방법원에서 발부(2018년 8월 22일)된 체포영장에 근거하여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됨.
- 화웨이는 런정페이(任正非)가 1987년 설립한 회사로서 캐리어네트워크, 핸드폰, 클라우드 등이 주력사업이며, 2017년 기준 매출은 2013년에 비해 약 2.5배, 영업이익은 약 2배 증가했으며, 특히 동기간 R&D투자를 약 3배 확대하여 2017년 기준 특허신청 수가 4,024개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sup>38)</sup>
-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멩완저우 화웨이 CFO가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중국 국민에게 “캐나다 여행의 위험을 충분히 생각해 가까운 시일 내에는 캐나다 여행을 삼가라”고 당부<sup>39)</sup>
- 캐나다 외교부 역시 2019년 3월 14일(현지시간) 셀렌베르크의 사형 판결<sup>40)</sup>후 중국 여행 시 ‘자의적인 법 집행 위험’이 있다며 자국민에게 주의보를 발령
- 이에 따라 중국의 대캐나다 투자, 캐나다의 대 중국 농산물, 에너지 및 목재 수출, 캐나다-중국 FTA 추진 등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sup>41)</sup>

■ [캐나다-중국 FTA] 캐나다-중국 FTA는 2016년 무역협상을 개시한 이후 2017년까지 3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2018년 이후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되고 ‘화웨이 사건’으로 캐나다와 중국간 경제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캐나다 정부는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중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상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 왔음.
- 2016년 9월 22일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2017년 8월 4일까지 3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38) KIF(2019), p. 23.

39) 外交部(2018, 검색일: 2019. 3. 20).

40) 이번 판결은 기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결과로, 셀렌베르크는 200kg 이상의 암페타민을 중국에 밀반입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됐고, 2018년에 기소돼 15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41) “China-Canada FTA talks, bilateral deals may be put on hold amid diplomatic row: analysts”(검색일: 2019. 3. 15).

■ [곡물기업의 수출면허 취소] 중국 정부의 캐나다 최대 곡물기업에 대한 카놀라씨 수출면허 취소(2019년 3월 1일)<sup>42)</sup> 조치에 대해 캐나다의 관련 협회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세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수입기업명단에 캐나다 최대 곡물기업인 리처드슨 인터내셔널(Richardson International)을 포함하지 않음<sup>43)</sup>.
- 상기 명단은 이미 2019년 1월 14일 중국세관 홈페이지에 발표되었으나, 3월 1일 동 기업명단이 수정 게재되면서 리처드슨 인터내셔널이 제외됨.<sup>44)</sup>
- 캐나다 카놀라 위원회(Canola Council of Canada)는 중국의 캐나다 기업의 수출면허 취소조치가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중국으로의 카놀라씨 물량을 다른 국가로 바꾸는 방법이 유일한 대응수단이라는 입장임.<sup>45)</sup>
- 2018년 캐나다산 카놀라씨의 대중국 수출액은 27억 달러임.

■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의 대캐나다산 펄프 반덤핑 관세를 부과(2018년 8월 재결정)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중국의 반덤핑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WTO에 제소한 상황임.(2018.09)

- 중국 무역구제홈페이지(中国贸易救济信息网)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18년)간 중국의 대 캐나다 무역구제 조치는 2014년 1건(반덤핑)에 불과한 반면, 캐나다의 대중 무역구제 조치는 46건(반덤핑 24건, 상계관세 부과 21건, 기타 1건)에 달함(그림 1, 2 참고).

그림 1. 캐나다의 대중 무역구제 제소 건  
(2008~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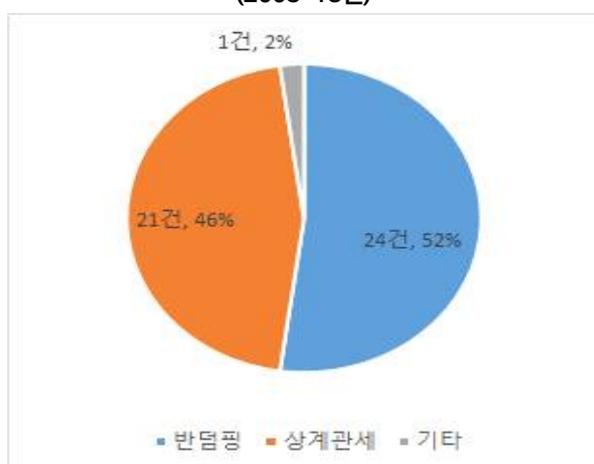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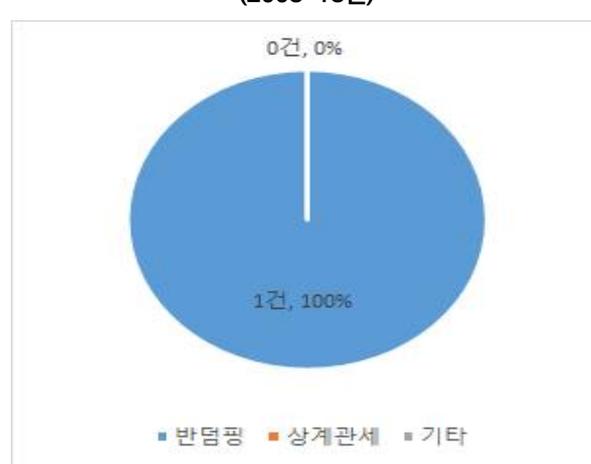


그림 2. 중국의 대캐나다 무역구제 제소 건  
(2008~18년)



자료: 中国贸易救济信息网, <http://cacs.mofcom.gov.cn/cacscms/view/statistics/ckajtj>(검색일: 2019. 3. 21).

42) "China canola ban remains a headache for Canada"(검색일: 2019. 3. 25).

43)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검색일: 2019. 3. 25).

44) "中国取消加拿大农业公司对华出口油菜籽资格"(검색일: 2019. 3. 25).

45) "China canola ban remains a headache for Canada"(검색일: 2019. 3. 25).

- 중국 상무부는 2014년 4월 4일부터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 브라질에 각각 16.9~33.5%, 13~23.7%, 6.8~1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최종판정하고, 4월 6일부터 관세를 부과해왔음.
- 동일 사안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018년 8월 홈페이지를 통해 캐나다산 펄프에 대해 기존 반덤핑 관세부과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발표<sup>46)</sup>

■ [비시장국과의 FTA] USMCA의 회원국과 비시장국(Non-Market Country) 간 FTA 체결조건이 강화되면서 캐나다와 중국 간 FTA 체결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비시장국과의 FTA 체결조항의 신설로 캐나다가 중국과 같은 비시장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과 멕시코는 USMCA를 종료하고 양자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비시장국과의 FTA 체결조항은 중국과 같은 비시장국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국의 요청에 의해 도입
-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시장국과의 FTA 체결조건 강화 조항(USMCA Section 32.10)은 국가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경제자치권(economic autonomy)에 해를 가하는 부정직한 행동이라며 강력 반발<sup>47)</sup>

##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Liberals)이 2019년 10월 21일로 예정된 연방정부 총선에서 재집권에 실패할 경우 통상정책의 기초가 다소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 Ipsos에서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각 정당별 지지도 여론조사(2019년 3월 5일)에서 자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1%였으며, 보수당(Conservatives)과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각각 40%와 20%를 기록<sup>48)</sup>
- 트뤼도 총리가 SNC-Lavalin社 스캔들과 관련하여 조디 윌슨-레이부(Jody Wilson-Raybould) 전 법무부 장관(2019년 2월 12일 사임)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자유당 지지율이 하락
- 자유당과 보수당 모두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나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통상정책에서 노동, 환경 이슈를 강조하기보다는 개방을 통한 해외시장 확보를 강조할 것으로 보임.<sup>49)</sup>

46) 商务部(2018, 검색일: 2019. 3. 22).

47)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Canada(2018)(검색일: 2019. 3. 15).

48) Ipsos(2019. 3. 5)(검색일: 2019. 3. 21).

49)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선거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음.

■ **캐나다는 USMCA 타결로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시아, 남미 등 수출다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USMCA가 역내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기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역내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USMCA의 효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캐나다의 10대 교역상대국 가운데 중국,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USMCA, CPTPP, 양자간 FTA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캐나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캐나다의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아직 미미한 수준임.
  - 한편 캐나다의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3번째(3.2%), 6번째(1.6%)를 차지하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캐나다는 영국과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수준의 무역관계 즉 'CETA+'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sup>50)</sup>

■ **미·중 통상분쟁으로 미국 산업부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캐나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미국과 중국은 각각 캐나다의 1위, 2위 교역 상대국으로 중국에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미국에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캐나다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됨.
- 미·중 통상분쟁으로 미국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돼지고기 등에 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될 경우 중국으로의 판로가 막힌 미국산 농산물의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USMCA가 발효되면 역내부가가치 비율 인상, 노동가치 비율 개념 도입에 따라 북미지역 현지 기업들의 생산비용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sup>51)</sup>**

- 캐나다 자동차기업 입장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역내생산 비중을 높여 2.5%인 미국의 최혜국대우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무리한 역내생산 확대를 일단 보류하고 관세를 감수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선택하여야 함.
- 북미지역으로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기업 등은 역내산 철강, 알루미늄 70% 이상 사용 요건, 최저 임금 요건 신설 등으로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일본 자동차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내 자동차 모델 10개 중 4개<sup>52)</sup>를 생산할 정도로 현지 생산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sup>53)</sup>
- 한편 북미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미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한국 자동차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50) McGill University(검색일: 2019. 3. 19).

51) "Trade deal gives automakers breathing room but could boost vehicle prices"(검색일: 2019. 3. 20).

52) 혼다 Odyssey(2위), 혼다 Ridgeline(3위), 혼다 Pilot(6위), 어큐라 MDX(7위) 4개 모델이며, 나머지 6개는 모두 미국 자동차 브랜드의 모델로 나타남.

53) "Cars.com 2018 American-Made Index: What's the Most American Car?"(검색일: 2019. 3. 20).

- 화웨이 CFO 체포사건으로 캐나다-중국간 경제협력은 당분간 답보상태일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구제 조치와 비관세 장벽을 통해 양국간 무역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양국은 FTA 협상 개시(2016년 9월) 이후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양국 지도자들은 FTA 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잇달아 밝힌 바 있음.
  - 2018년 9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합의한 캐나다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으며,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중국-캐나다 연례대화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캐나다 FTA 체결 문제를 논의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인 유채씨 종자(카놀라씨)의 대중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중국의 캐나다산 펄프에 대한 반덤핑 부과에 캐나다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간 통상마찰 소지는 여전함.
  - 중국정부가 캐나다 최대 곡물기업의 카놀라씨 수출허가를 취소하고, 캐나다 범죄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간 경제·외교 관계가 경색 **KIEP**

## 참고문헌

### [영문자료]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2018. "Investment Monitor 2018. Repor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Canada into the Asia Pacific." p. 38.
- U.S. House of Representative. 2012. 10. 8. "Investigative Report on the U.S. National Security Issues Posed by Chinese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Huawei and ZTE," pp. 44-46.
- Washington Trade Daily. 2019. 3. 13a. "Support for USMCA," p. 2.
- Washington Trade Daily. 2019. 3. 14b. "House Democrats Cool on USMCA," p. 1.

### [온라인 자료]

- "African Union accuses China of hacking headquarters" 2018. Financial Times. (January 29).  
<https://www.ft.com/content/c26a9214-04f2-11e8-9650-9c0ad2d7c5b5>(검색일: 2019. 2. 28).
- Bank of Canada. 2019. 4. 4. "2018 Annual Report."  
<https://www.bankofcanada.ca/wp-content/uploads/2019/03/annualreport2018.pdf>(검색일: 2019. 4. 5).
- Bank of Canada. 2019. 1. 9. "Bank of Canada maintains overnight rate target at 1 3/4 per cent."  
<https://www.bankofcanada.ca/2019/01/fad-press-release-2019-01-09/>(검색일: 2019. 3. 19).
- Boston Consulting Group. 2018. 11. 1. "Preparing for North America's New Auto Trade Rules."  
<https://www.bcg.com/publications/2018/preparing-north-america-new-auto-trade-rules.aspx>(검색일: 2019. 3. 20).
- Bloomberg. 2018. 11. 8. "How Democrats Could Help or Hurt Trump's Next Trade Policy Move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11-07/how-democrats-could-help-or-hurt-trump-s-next-trade-policy-moves>(검색일: 2019. 3. 14).
- "Canada starts appeal of US softwood lumber tariff decision." 2018. The Hill. (January 3).  
<https://thehill.com/policy/finance/367221-canada-starts-appeal-of-us-softwood-lumber-tariff-decision>(검색일: 2019. 3. 13).
- "Canada threatens not to ratify USMCA until US ends steel, aluminum tariffs." 2019. The Globe and Mail. (February 27).  
<https://www.theglobeandmail.com/business/article-canada-presses-us-to-drop-steel-and-aluminum-tariffs-as-usmca/>(검색일: 2019. 3. 18).
- "Cars.com 2018 American-Made Index: What's the Most American Car?" 2018. Cars.com. (June 21).  
<https://www.cars.com/articles/carscom-2018-american-made-index-whats-the-most-american-car-1420700348632/>(검색일: 2019. 3. 20).
- "China-Canada FTA talks, bilateral deals may be put on hold amid diplomatic row: analysts." 2019. Global Times. (January 15).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35887.shtml>(검색일: 2019. 3. 15).
- "China canola ban remains a headache for Canada." 2019. Financial Times. (March 22).  
<https://www.ft.com/content/70502698-4c53-11e9-bbc9-6917dce3dc62>(검색일: 2019. 3. 25).

- “Chinese internet users jump on Justin Trudeau’s Lunar New Year message to chide Canadian PM over Huawei.” 2019.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6).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2185156/chinese-internet-users-jump-justin-trudeaus-lunar-new-year>(검색일: 2019. 2. 27).
-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Canada. 2018. 10. 5. “Remarks of the Spokesperson of the Chinese Embassy in Canada on USMCA Section 32.10.”  
<http://ca.china-embassy.org/eng/sgxw/t1602081.htm>(검색일: 2019. 3. 15).
- Gallup. 2018. 7. 9. “Americans Say China Trade Unfair, Trade With Canada, EU Fair.”  
<https://news.gallup.com/poll/236843/americans-say-china-trade-unfair-trade-canada-fair.aspx?version=print>(검색일: 2019. 3. 14).
- Government of Canada.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index.aspx?lang=eng>(검색일: 2019. 3. 20).
- “Here's how each province stands to be affected by the federal carbon tax.” 2018. National Post. (October 23).  
<https://nationalpost.com/news/politics/heres-how-each-province-stands-to-be-affected-by-the-federal-carbon-tax>(검색일: 2019. 3. 12).
- “How a U.S.-China trade war could help - and hurt - Canadian industries.” 2018. Financial Post. (April 5).  
<https://business.financialpost.com/news/economy/how-a-u-s-china-trade-war-could-help-and-hurt-canadian-industries>(검색일: 2019. 3. 21).
- “Huawei and ZTE handed 5G network ban in Australia.” 2019. BBC. (March 23).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5281495>(검색일: 2019. 3. 25).
- “Huawei sacks employee arrested in Poland on spying charges.” 2019. Reuters. (January 12).  
<https://www.reuters.com/article/us-huawei-poland-security/huawei-sacks-employee-arrested-in-poland-on-spying-charges-idUSKCN1P60E8>(검색일: 2019. 2. 27).
- IMF. 2018.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8/02/weodata/index.aspx> (검색일: 2019. 3. 6).
- “India investigates report of Huawei hacking state carrier network.” 2014. Reuters. (February 6).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ia-huawei-hacking/india-investigates-report-of-huawei-hacking-state-carrier-network-idUSBREA150QK20140206>(검색일: 2019. 2. 28).
- Ipsos. 2019. 3. 5. “Liberals(31%, -3) Shed Support as Tories(40%, +4) Capitalize in Wake of Jody Wilson-Raybould Testimony.”  
<https://www.ipsos.com/en-ca/news-polls/Liberals-Shed-Support-Tories-Capitalize-in-Wake-of-Jody-Wilson-Raybould-Testimony>(검색일: 2019. 3. 21).
- KIF. 2019. 「중국 5세대(5G)관련 산업 분석과 현황」(검색일: 2019. 3. 20).
- Liberal Party of Canada. 2015. “A New Plan for a Strong Middle Class.”  
<https://www.liberal.ca/wp-content/uploads/2015/10/New-plan-for-a-strong-middle-class.pdf>(검색일: 2019. 3. 14).
- McGill University. “Research on the effects of Brexit on future Canada-UK trade relations.”

- <https://www.mcgill.ca/jean-monnet-chair/research-brexit>(검색일: 2019. 3. 19).
- “Newly-signed USMCA points at increased auto imports, watered-down LGBTQ protections.” 2018. Global News. (December 2).  
<https://globalnews.ca/news/4720968/usmca-auto-sector-labour-rights/>(검색일: 2019. 3. 18).
- Office of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8. 11. 30. “Side Letter Text on 232 CA-US Response.”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FTA/USMCA/Text/Side\\_Letter\\_Text\\_on\\_232\\_CA-US\\_Response.pdf](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FTA/USMCA/Text/Side_Letter_Text_on_232_CA-US_Response.pdf)(검색일: 2019. 3. 18).
- “Secret Back Door in Some U.S. Phones Sent Data to China, Analysts Say.” 2016.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5).  
<https://www.nytimes.com/2016/11/16/us/politics/china-phones-software-security.html>(검색일: 2019. 2. 28).
- Statistics Canada. 2019a. Table 36-10-0008-01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Canadian direct investment abroad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anada, by country, annual.  
<https://www150.statcan.gc.ca/t1/tbl1/en/tv.action?pid=3610000801>(검색일: 2019. 3. 6).
- Statistics Canada. 2019b. Table 36-10-0009-01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Canadian direct investment abroad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anada, by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and region, annual.  
<https://www150.statcan.gc.ca/t1/tbl1/en/tv.action?pid=3610000901>(검색일: 2019. 3. 28).
- The Globe and Mail, 2019. 2. 27. “Canada threatens not to ratify USMCA until US ends steel, aluminum tariffs.”  
<https://www.theglobeandmail.com/business/article-canada-presses-us-to-drop-steel-and-aluminum-tariffs-as-usmca/>(검색일: 2019. 3. 18).
- “Trade deal gives automakers breathing room but could boost vehicle prices.” 2018. Detroit Free Press. (October 1).  
<https://www.freep.com/story/money/cars/2018/10/01/canada-trade-deal-auto-prices/1486693002/>(검색일: 2019. 3. 20).
- UN Comtrade Database. 2019.  
<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19. 3. 21).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012. 10. 8. “Investigative Report on the U.S. National Security Issues Posed by Chinese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Huawei and ZTE,” pp. iv-vii.  
<https://stacks.stanford.edu/file/druid:rm226yb7473/Huawei-ZTE%20Investigative%20Report%20%28FINAL%29.pdf>(검색일: 2019. 2. 27).
- “USMCA No Panacea for Canadian Automakers.” 2019. WardsAuto. (January 18).  
<https://www.wardsauto.com/industry/usmca-no-panacea-canadian-automakers>(검색일: 2019. 3. 18).
- “USMCA: Trudeau meets with Quebec dairy farmers, promises compensation.” 2018. WardsAuto. (October 4).  
<https://montrealgazette.com/news/canada/prime-minister-meets-with-quebec-dairy-farmers-post-usmca-promises-compensation/wcm/e3939fc2-8df2-4bdc-b5da-57e695c0441f>(검색일: 2019. 3. 14).

- “U.S. working on steel, aluminum tariff relief for Mexico, Canada: trade chief.” 2019. Reuters. (March 13).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steel/us-working-on-steel-aluminum-tariff-relief-for-mexico-canada-trade-chief-idUSKBN1QT2LZ>(검색일: 2019. 3. 14).
- YouTube. 2018. 11. 30. “USMCA: U.S., Canada and Mexico sign trade agre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XCyXWXHvIBE>(검색일: 2019. 3. 12).
- 商务部. 2018.04.20 「商务部公告2018年第37号 关于原产于美国、加拿大和巴西的进口浆粕反倾销措施再调查裁定的公告」.  
<http://trb.mofcom.gov.cn/article/cs/201804/20180402734649.shtml>(검색일: 2019. 3. 22).
- 路透社. Reuter2019.0s 「独家：中国大连港禁止澳洲煤炭进口 设立2019年进口配额--消息」.  
<https://cn.reuters.com/article/exclusive-dalian-port-au-coal-0221-idCNKCS1QA0JL>(검색일: 2019. 3. 26).
- 外交部, 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 2018. 12. 6.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619568.shtml](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619568.shtml)(검색일: 2019. 3. 20).
- 新浪网. 「加所在一联盟有3国抵制华为 华为却这样对待加」.  
<http://news.sina.com.cn/c/2019-02-23/doc-ihqfskcp7775858.shtml>(검색일: 2019. 3. 24).
- 新浪网. 「中国取消加拿大农业公司对华出口油菜籽资格」. 2019. 3. 6.  
<http://finance.sina.com.cn/money/future/agri/2019-03-06/doc-ihrfqzkc1648870.shtml>(검색일: 2019. 3. 25).
-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加拿大输华小麦大麦大豆油菜籽注册企业名单」(2019. 3. 1).  
<http://www.customs.gov.cn/customs/jyjj/dzwjyj/qymd/zwjcp/2322553/index.html>(검색일: 2019. 3. 25).
- 中国贸易救济信息网. <http://cacs.mofcom.gov.cn/cacscms/view/statistics/ckajtj>(검색일: 2019. 3. 21).